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수월 스님(2)

경허, 누구요 수월, 수월입니다

경허,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수월, (깊신 한 켄레 삼아 올리고 나온다)

만년에 갑산 용이방 도하동에서 마 을 훈장으로 살던 경허(鏡虛, 1849~ 1912) 선사는 열반이 가까워 병이 들 어 누워있었다.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은 여 기 저기 돌아서 마침내 스승 경허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해질 무렵, 서당 에 도착하여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 인 짚신을 보자, 그는 스승의 짚신인 을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다.

“스님, 안 녕 하 십 니 까?”

안 에 있 던 경허 선 사가 문밖

에서 자신을 부르는 제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정색을 하고 물었다.

“누구요?”

“수월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사람을 잘못 찾는 듯 싶소. 그러나 가련 길 이나 계속 가시오.”

“스님!”

경허 선사는 끝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스승의 뜻을 알아차린 수월 스님은, 그냥 나올 수는 없어 스승에 게서 배운 짚신 삼는 기술을 발휘하 여 정성껏 짚신 한 켄레를 삼아 댓돌 위에 올리고 고마움을 표하며 서당을 나왔다.

치열한 보림공부를 통해 ‘진제와 속제가 원융무애(圓融無礙)하게 둘 아난 중도(眞俗二諦中道)’를 요달한 경허 선사는 말년에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옷차림으로 티끌세상에서 중 생을 교화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을 살았다.

위의 문답은 천장암에서 주장자를 꺾어 던져버리고 ‘저자거리에서 보살 행을 하며 삶을 회향한(入處垂手)’ 경 허 선사와 그의 만상좌 수월 스님의 회 회후의 문답이다.

이 선문답은 “그대는 누구입니 까?”라는 양 무제의 질문에 “모른다 (不識)”라고 대답하고, 사후에 짚신 한 짚을 남기고 인도로 돌아갔다는 달마 대사의 선헤(禪話)를 떠올리게 한다.

수제자인 수월 스님이 그토록 예타 게 불렀건만, 경허 선사가 끝내 ‘모른 다’고 한 뜻은 무엇이며, 수월 스님이 섬돌 위에 짚신 한 켄레를 삼아 올린 뜻은 과연 무엇일까?

‘모른다’는 식·불식 초월한 개념

언어도단한 본래면목을 지직한 말

것은 제자를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르려 한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식·불식(識不識)의 대립을 끊고 그 본 별의식을 초월한 ‘모른다’이다.

언어나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위 언려불급(言慮不及) 언어도단 (言語道斷)한 각자의 본래면목을 지 지(直指)한 말이다.

고정관념에 의한 성인과 범부, 유 (有)와 무(無) 등의 대립적인 사고방식 을 없애기 위하여 한 말이다.

집착·분별에서 나오는 상대적 인 식을 없애고, ‘경허’나 ‘수월’이니 하 는 ‘이름과 모양(名相)’을 떠나야만 ‘모른다’고 대답한 달마와 경허 두 선 사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경허 선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 에게 ‘불식’의 가르침을 전하며 “가 려 길이나 계속 가시오”라고 철저한 보림공부를 당부한 것이다.

스승의 뜻을 간파한 수월 스님은 짚신 한 켄레를 정성껏 공양하며 스 승의 마지막 길을 전송한다.

그는 이러한 말없는 문답 그대로, 만주 송림산 화엄사에서 짚신을 머리 위에 이고 앉아 열반에 들었다. 스승 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는 평생 참구 했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초발심 불꽃으로 수행의 길 밝히리

조계종 ‘간화선 입문-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참가자 입제

“1982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서야 용기를 냈어요.” “막상 참여는 했지만 간화선이라는 게 너 무 무섭게 느껴져 지금 당장이라도 법당을 나가고 싶어요.”

8월 27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이 주관하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입제식을 마친 후, 35명 의 제6기 참가자들이 저마다 불교 인연과 발심의 계기를 말한다.

놀라운 사실은 참가 대중의 다수가 불교 에 입문한 세월이 평균 10~20년에 달할 정 도로 오래되었다는 점. 유재철 연화회 대표 처럼 20년 경력의 불교활동가를 비롯해 화 계사, 한마음선원, 향원선원 신도와 동사법 법회나 염불 수행을 경험한 수행자, 불교교 양대학을 졸업한 재가자 등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불교신행을 해 온 터이다.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에 처했을 때 불교에 입문한 뒤 여러 가지 사찰과 수 행법을 찾아 해매었지만, 수행에 대한 속 시원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더구나 간화선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들어서지 못하고 문밖에서 서성기던 세월 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이들이 보아 온 것 은 아무리 해도 화두가 터파되지 않는 답답 함, 수행자의 깨달음 지상주의와 상기병, 생 활과 수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수십 년 수행했다는 선개이 하루아침에 수행법을 바꾸는 모습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롭게 발심한 불자들은 그 런 불신의 세월을 잊고, 그야말로 초발심 때 의 간절함과 용맹심으로, 이번엔야말로 ‘문 없는 문’의 관문을 넘어서고 말겠다는 결연 한 의지를 표현했다.

최고령 대광원(70·경기 고양 보살로부 터 최연소 임은숙(33·경기 포천)씨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대가일 중역, 방송



70세의 최고령 참가자 대광원 보살부터 33세의 최연소 참가자 임은숙씨에 이르기까지 간 화선 심회에 빠져든 시간이었다.

위원회 간부, 중소기업 사장, 한의사, 교사, 간호사, 주부 등 여러 직업을 가진 불자들은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1주간 매 주 월요일 저녁에 2시간 30분씩 선(禪)·교 (敎)를 함께 닦게 된다.

특히 10월 6~7일은 봉화 금불암에서 이 법회의 증명법사인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 의원이 직접 참선을 지도하고 수행자의 근 기에 맞는 화두를 결탁(決擇)해 준다. 프로 그램 기간 중에는 지도법사인 원철 스님(조 계종 기획국장)과 3명의 지도사(박희승, 변 복옥, 김준영)들이 수시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이날 입제식에서 신도인 불교인재개발원 이사는 “간화선 입문 과정을 마친 1~4기 수료생들이 중립회관 동문회를 만들어 매 주 수요일 참선하고 있다”면서 “참나를 찾 아 생사 해탈하는 궁극 목적과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는 삶이 조화되도록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오리엔테이션에 나선, 박희승 강사 (총무원 기획자장)는 “불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로 정견을 세우고 신심과 발심을 일으 키 일상 속에서도 화두를 들 수 있게 함으 로써,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안정,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에 따르면, 간화선 입문프 로그램이 강조하는 점은 무엇보다 ‘내가 본 래 부처’라는 철저한 믿음이다. 자신이 본 래 부처라는 절대 궁정 없이 수행한다면 그 것은 간화선과 심판발전 리나 떨어진다 는 것. ‘본래 부처’라는 믿음은 나와 현실에 대 한 대공이며, 이 본래 부처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화두를 통해 확인하는 데 간화선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11차례의 강의와 실참 실수를 통해 진행 되는 프로그램은 수행일지 쓰기와 수행담

나누기 과정을 거친다. 수행일지 쓰기는 매번 각 주제(간화선과 중 도, 연기, 무아, 공, 화두 등)별 강 의가 끝나고 해당 주제에 대 한 수행 과제를 주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고 그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 다. 이것은 일상속의 자기 점검을 통해 발심과 본심 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깨 어 있는 마음으로 정진을 지 속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수행 답 나누기는 도반들의 생활 법 문을 들으며, 배운 내용의 이해 를 심화시키고 실천의 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 겨 보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2006년 5월 부터 시작해 5기까지 250여 수료 생을 배출한 간화선 입문프로그 램은 어떤 성과를 일궈냈을까. 포 교원 포교연구소 고경석 연구팀 장은 “수료생들은 가정이나 직장 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졌고, 화를 다 스티릴 수 있었으며, 하심 하는 법을 배웠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삶이 여유 로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수료생들은 대부분 이전에 막연하 화두를 들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공부 진 척이 잘 되었다고 한다.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며 다양한 수행 체험을 해 너무나 기 뻐했다고 하고,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확 신이 생겼다고 한다.

물론 모든 참가자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 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화두가 잘 안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일부 불자들은 중도에 그만두기도 했다. 이는 수행자의 발심 부족과 동시에 프 로그램의 미비 등에 원인이 있었지만, 선지 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듯 하다.

간화선은 실참과 지도·점검은 물론 법 문에 있어서도 눈 밝은 선지식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선원장급 이상의 선사가 매 번 수행자를 이끌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 다. 조계종에서는 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선 포교사’ 제도를 본격 활용할 예정이 지만, 현재 재가선원을 운영 중인 거사선 의 리더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간화선을 지도하는 데는 만 명의 장교 보다는 한 명의 장수가 필요하다. 출·재가라는 분별을 떠나 안목 있는 선지식을 모실 수 있다면, 조계종의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은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02)735-242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상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연**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1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 게시판

- **10일 집중수행-해국 스님** 수행과 삶 강연-경전연구회는 9월 6일 오후 3~5시 서울 미타사 내 대승암에서 석조사 조실 해국 스님을 초청, ‘수행과 삶이 하나 되는 길’을 주제로 창립 3주년을 초청강연을 연다. (011)9038-9594
- **여래 삼시요리 ‘능가경’ 강의-불교서울전통문화**를 졸업한 스님들로 구성된 선교연구모임은 9월 15일부터 매일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한복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각성 스님을 초청, 여래 삼시요리(능가경)를 공부한다. (02)735-1053
- **숙속명상 템플스테이**-구미 도리사는 9월 14~16일,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지도 하는 소나무 숙속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새벽 숲길 걷기명상, 타인을 존중하는 절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054)474-3737
- **천수다라니 108편 49일 독송-일산 덕양선원**은 9월 10일~10월 28일 제16차 신묘장구대다라니 108편 독송 49일 기도정진을 실시한다. 정진기간 중 목·금요일은 선원장 법상 스님이 집전하며 나머지는 자율 정진 (031)907-7172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항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수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 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기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새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솜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흡수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 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수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수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뜯겨서 튼튼했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며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수성, 방습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상·이불, 레드, 베게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상·이불, 레드, 베게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4켢)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계대 후문역 하차